

건설동행위원회,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로드맵 발표

- 안전문화 확산, 청년 소통·스마트화, 신뢰받는 일터 조성을 위한 10대 과제 마련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(회장 한승구)는 6월 12일 오후 2025년 건설동행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,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.
- 건설동행위원회는 그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부실시공, 안전사고, 부정부패 및 열악한 건설현장 등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11월 건설 분야 협회·학회·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출범한 민간 주도 산·학·연·관 협의체로,
 - 정충기 서울대 교수(前 대한토목학회장)와 이진숙 충남대 교수(前 충남대학교 총장)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, 11개 기관의 장(국토부는 1차관)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이다.
 - 출범 이후 「제도개선」, 「사회공감」, 「기술혁신」, 「행복일터」 등 4개 분과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한 후, 부기관장들이 참여하는 실무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였다.
- 로드맵은 동행위원회의 슬로건인 “신뢰를 짓는 건설산업, 미래를 잇는 가치성장”을 비전으로, 3대 목표와 10대 과제를 마련하였으며,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목표 1.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안전문화 확산 >

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한다.

- 그간 반복된 대형 건설사고 결과 규제·처벌 중심의 제도가 구축되어, 안전을 비용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하였다.
- 이에, 민간 건설회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자기 규율을 강화하고, 건설동행위원회를 중심으로 건설 현장 사망사고 예방 공모전과 추락예방·안전모착용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민간의 참여 제고를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한다.

②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.

- 중앙정부 중심의 안전관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은퇴 건설기술인 등 민간의 경험 있는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,
- 지반, 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재능기부형 자문단인 “건설 주치의”를 구성하고, 건설현장 및 인프라 전반에 대해 위험 징후를 감지하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전문가를 매칭, 파견하는 기술자문 체계를 구축한다.
- 또한, 건설안전 우수 근로자나 은퇴 기술인 등을 “건설안전 멘토단”으로 위촉하여 소규모 현장에서 안전 컨설팅, 교육, 기술지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.

③ 소규모 건설현장 주변 환경 이미지를 개선해 나간다.

- 소규모 건설현장 주변 환경 정비 미흡, 근로자 복장 불량 등으로 인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을 체증 유발하는 등 국민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누적되어 왔다.
- 이에, 시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심지 교통 신호수 배치 기준을 구체화하는 매뉴얼을 개발하고, 중소규모 현장 작업자를 위해 기능성과 안전성을 높인 표준 디자인 작업복을 개발하고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.

4 건설현장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종사자 복지를 강화한다.

- 건설현장의 미흡한 휴게·편의시설, 부족한 복지지원, 불균형한 워라벨 등으로 직업 만족도가 저하되고, 산업의 부적정 인식이 심화되어 왔다.
- 건설현장의 휴게·편의시설 등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휴게·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고, 근로환경이 열악한 현장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개선을 유도한다.
- 아울러, 실효성 있고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워라벨 우수사례는 포상 및 홍보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를 확산한다.

< 목표 2. 청년과 소통하는 스마트한 미래산업으로 성장 >

5 건설소통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민 공감형 플랫폼을 구축한다.

- 그간 건설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, 대국민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건설산업의 혁신적 성과와 사회공헌 등에 대한 다양한 홍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,
- 스마트건설 엑스포와 연계한 미래 건설인의 밤 개최 등 건설 위크(건설주간)를 선포하고, 대학생·취업 준비생 등 청년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등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연령·계층별 맞춤형 건설소통 콘텐츠를 지속 확대한다.
- 또한, 주요 건축물과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축적된 첨단 기술과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, 슬로건 공모전, 홍보영상 경진대회,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등 홍보를 다양화한다.

⑥ 혁신기술 공모전을 개최하고,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
- 청년층, 학생들이 기술혁신 사례나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, 접근도 어려운 상황으로 체험 등을 통한 공감 확대가 필요하다.
- 청년들이 첨단건설기술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공모전 수상 기술이나, 국가 프로젝트, R&D 등 혁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와 청년 인재 참여를 유도하고, 스마트 건설 챌린지 기술 시연, 건축·도시 시뮬레이션 게임 챌린지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참여와 관심도를 제고한다.

⑦ 스마트건설 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.

-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·중소기업 등의 기술혁신 및 성장 기반 마련이 필요해졌다.
-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 공간 제공, 교육·컨설팅 제공, 기술 실증 지원, 해외 진출 지원 등 단계별 육성 전략을 지속 확대하고,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 간 교류할 수 있는 자리도 적극 마련한다.
- 또한, 스마트건설 활용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민간·공공 기관을 진단·평가하고, 컨설팅하여 역량 강화를 유도한다.

< 목표 3. 산학연관 협력으로 신뢰받는 일터 조성 >

⑧ 건설산업의 윤리문화 정착과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을 강화한다.

- 부정적인 건설업 이슈들로 인한 대국민 신뢰도 개선을 위해 단순 기부를 넘어서는 윤리문화 정착과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협력체계를 수립한다.
- 청렴·안전·상생에 관한 200만 건설인 청렴 건설 실천 서약을 추진하고, 건설동행위원회와 민간·공공 건설 유관단체 간 공동 사회공헌 활동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이나 미래 건설인 육성 지원 등 구체적인 사회공헌 활동들을 이행해 나간다.

9 공정대가 기반의 시장 질서를 조성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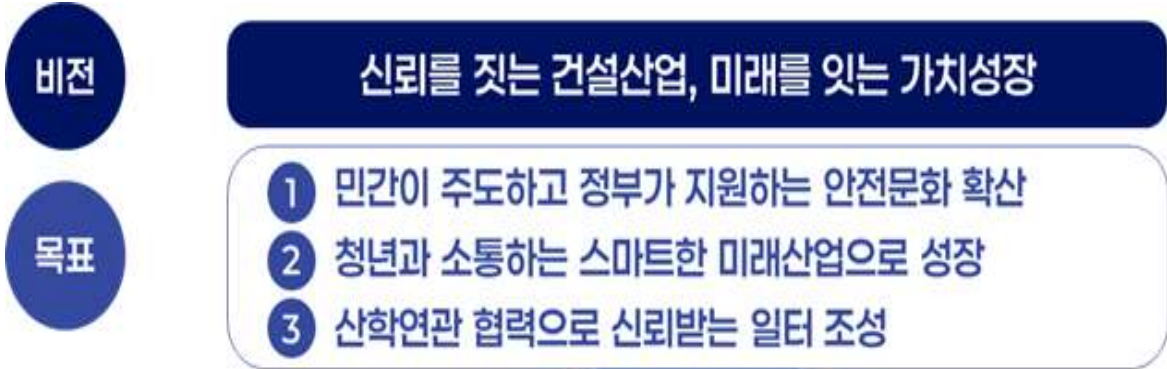
- 건설산업의 안전 및 품질 저하와 인력 이탈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걱정하지 못한 공사비와 설계·감리비 산정 체계가 지적되어 왔다.
-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, 설계, 엔지니어링 분야 등 근로자의 적정 임금 확보를 위한 사업대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.
- 아울러, 입찰제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 노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, 공정하고 청렴한 입찰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한다.

10 청년 건설인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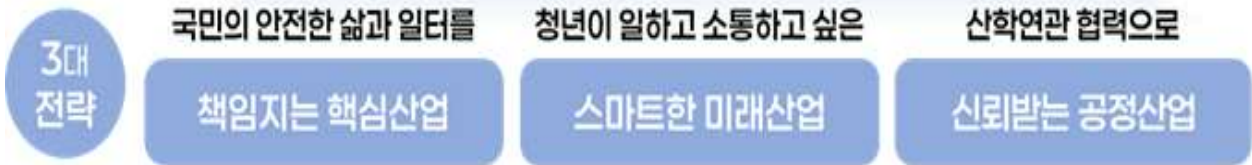
- 건설 예비인력과 종사자의 체계적인 경력 경로 설정을 위한 기술 트렌드 교육이나 생애주기에 맞춘 성장 지원 체계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,
 - 건설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를 통한 스마트 건설기술 등 전담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고, 청년 건설인 대상으로 기술·기능 전수와 경력개발 경로 설계를 위한 멘토링을 지원한다.
 - 또한, 예비 건설인 교육을 위해 건설동행위원회와 교육기관이 협업하여 고등학생은 진로 탐색 중심, 대학생은 실무 연계형 기술 체험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.
- 로드맵 중 단기 과제는 즉시 추진하여 연내 완료하고, 중장기 과제는 향후 분과 활동 등을 통해 과제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'27년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.
- 로드맵 이행 상황은 '2025 스마트건설 엑스포'(11.19~11.21) 개최 전까지 점검하여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.
- 정충기 공동위원장(前 대한토목학회장)은 “사람과 함께하는 건설이 이제 안전, 미래, 신뢰를 아우르는 산업으로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.”며, “이번 로드맵 발표는 건설 문화의 긍정적 변화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”이라고 밝힐 예정이다.

- 이진숙 공동위원장(前 충남대학교 총장)은 “건설동행위원회는 앞으로 건설 산업이 안전하고 공정하며, 기술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갈 것”이라며, “건설산업 신뢰회복과 위상 재정립을 위한 협력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힐 예정이다.
-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한승구 회장은 “최근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및 고금리로 인한 공사비 상승, 공사물량 감소, 현장 인력 고령화, 건설환경의 지속적인 규제 등으로 건설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”이라고 하면서
 - “금번 건설동행위원회에서 발표되는 ‘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로드맵’이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, 건설기술의 스마트화, 일하고 싶은 건설산업으로 청년·여성 건설인 유입 등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건설업이 새로운 미래상과 건설인의 혁신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”고 전했다.
-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은 “오늘은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함께 극복하자는 뜻에서 출범한 건설동행위원회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 뜻깊은 날이다”라고 의미를 부여하며,
 - “로드맵 발표를 넘어서 실제로 국민과 건설업계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강조하며, “정부는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아낌없이 뒷받침을 하겠다”고 밝힐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명주 (044-201-3549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욱 (044-201-3550)
담당 부서	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	책임자	실장	신연홍 (02-3485-8392)
		담당자	팀장	서명덕 (02-3485-8361)
담당 부서	건설산업연구원	책임자	실장	손태홍 (02-3441-0698)
		담당자	팀장	김동민 (02-3441-0811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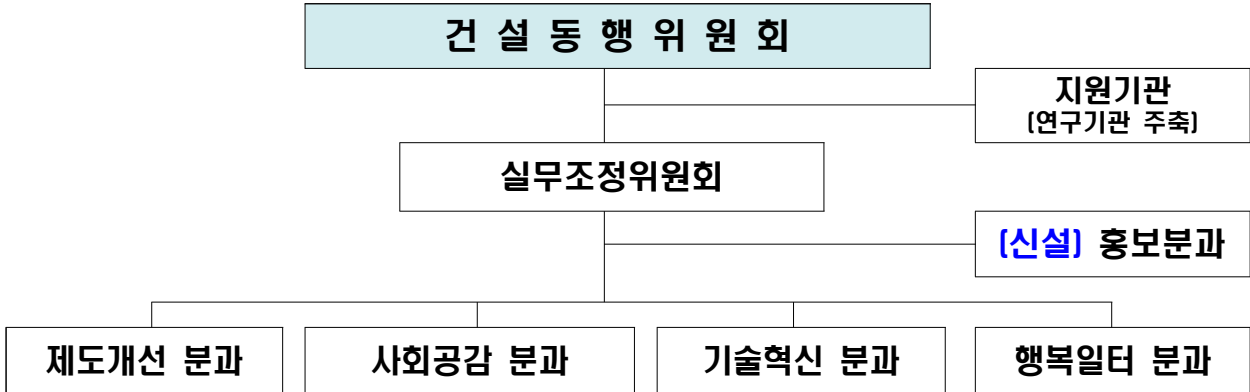
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10대 핵심과제



- 1 인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
- 2 민간전문가 참여형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
- 3 소규모 건설현장 주변 환경 이미지 개선
- 4 건설현장 근로환경 개선 및 종사자 복지 강화
- 5 건설소통 콘텐츠 제작 및 국민 공감형 플랫폼 구축
- 6 혁신기술 공모전 및 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
- 7 스마트건설 기업 역량 강화 체계 구축
- 8 건설산업의 윤리문화 정착과 지속가능한 사회공헌
- 9 공정대가 기반의 시장 질서 조성
- 10 체계적인 건설인 양성 지원

□ **건설동행위원회 구성**

- 금번 건설동행위원회를 통해 신규 구성원으로 6개 기관의 장 추가 및 홍보분과 신설



구분	협의체 위원	
외부전문가 (5명)	<공동위원장> 정충기 서울대 교수(前 토목학회 회장)	<공동위원장> 이진숙 충남대 교수(前 총장)
	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	추덕담 EBS PD 박지선 숙명여대 교수
산업계 (4명→9명)	한승구 건설협회장(건단련 회장)	윤학수 전문건설협회장
	이해경 한국ENG협회장	박종면 건설기술인협회장
	김종흔 건설ENG협회장(신규)	박철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(신규)
	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(신규)	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(신규)
	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(신규)	
학계 (2명→3명)	최동호 토목학회 회장	박진철 건축학회 회장
	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(신규)	
연구계(2명)	박선규 건설기술연구원 원장	이충재 건설산업연구원 원장
공공(3명)	진현환 국토부 1차관	이한준 LH사장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

□ **건설동행위원회 홍보분과 신설**

- (구성) 민간 홍보 전문가 4인, 협회 및 공공기관 홍보담당자 4인, 정부 1인(기술정책과장)을 포함한 총 9인 구성
- (기능) 각 분과별 로드맵 이행 과정에서 홍보 방안 자문 요청 시 전문가의 입장에서 홍보자문 등 수행(수시 운영)